

각 분야 전문가 다수 참여... 조성사업 속도 내고 내실 다진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제8기 조성위원회 출범과 과제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를 비롯해 5대 문화권으로 개편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등 4대 역점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을 차질없이 원형 복원해 민주화의 성지로서의 구심점뿐 아니라 역사 교육의 산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문화전문가 등 다수 민간 위원 포함=8기 민간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을 비롯해 건축, 법률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전문적 식견과 추진력이 보태져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는 관측이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인 정동채 위원장은 제15, 16, 17대 국회위원을 지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부위원장인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도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화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인 강진경·정경은 교수도 문화예술기획, 문화경영관광 분야 등 전문가다. 강 교수는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위원인 정교수는 광주혁신추진위 문화예술특별위원

문화예술·관광·건축 등 29명 부진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 등 4대 역점과제 분게도 오를 듯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도 시급

을 겸하고 있다.

김호균 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이사는 직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담운영팀, 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에서 근무했다. 전고필 전라도지도그라픽 연구소장은 향토사 전문책방 '이목구심사' 대표로 대인예술아시아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인 유우상 위원은 대한건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아시아문화도시 투자진흥지구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밖에 김희재 윌렛스토리 대표는 추계예대 영상사나리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장식 위원은 동아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다. 세종문화회관 비상임 이사를 역임한 안성아 위원은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며, 함선옥 위원은 역시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술부회장을 지냈던 흥기원 위원은 단국대 예술종합학교 연극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성사업 과제와 조성위의 역할=사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조성사업) 국책사업임에도 과거 보수정부의 무관

심, 사업 축소 등으로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담보상태다.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행 과제로 문화전당 활성화와 문화권 사업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조성사업 전반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핵심은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당초 조성사업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업 내용, 추진 방식, 체계 재정비를 통해 향후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도적인 사업 축소 등 조성사업 위상약화에 따른 사업 부진에 대한 재조정이 전제돼 있다.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격하는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실제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2004~2023년)는 5조2912억 원으로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528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20년 사업기간 가운데 15년째까지의 사업비가 계획 대비 27.5%만 투입됐을 뿐이다.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은 1조6872억 원(국비 1조3872억 원, 민자 3000억 원)이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은 3조6040억 원(국비 1조3807억 원, 지방비 7896억 원, 민자 1조4337억 원)이다.

특히 조성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분야는 최근 3년 국비 반영률이 45%로 낮은 편이다. '아시아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에 의거해 2019~2023년까지 투자되어야 할 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후 509호 조사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등경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주주의”

문 대통령 6·10 항쟁 기념식 참석

비는 1조497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아특별 48조에 따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비율을 7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직무대행체제와 2원체제를 포함한 위탁 여부 등은 조성 핵심 사업인 전당의 정상화와도 연계된다. 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 대통령 6·10 항쟁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참석,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6·10 기념식은 5공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남영동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 날개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또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렇게 이른 평화만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민주화에 투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상 처음으로 국민훈

장 모란장(12명)과 국민포장(2명)을 받게 된 민주유공자 14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 권의 개선에 헌신해 온 고(故) 이소선 여사를 가장 먼저 호명하며 “전태일 열사를 가슴에 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다하셨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인생을 바친 고 박형규 목사님,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 시대의 양심 고 지적순 주교님”이라고 언급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고 조비오(철원) 신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한 고 박정기 회장,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고 성유보 기자”라고 거론했다.

또 “시대와 함께 고뇌한 지식인 고 김진균 교수님, 유신독재에 항거한 고 김찬국 상지대 총장님, 농민의 친구 고 권중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님, 민주인권 변화의 태동을 알린 고 황인철 변호사님”이라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이름도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로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이라며 “저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6) 양산

젊은 시절, 여름이면 늘 양산을 쓰고 다녔다. 멋쟁이 친구들은 예쁜 모자를 쓰거나 책으로 해를 가렸지만 햇볕에 얼굴 타는 게 제일 싫어서 꼭 양산을 쓰곤 했다. 당시엔 울드한 패션이었으리라. 오히려 요즘에는 엔지 더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아니 어쩌면 멋보다도 비타민 D 섭취로 뼈 건강을 위한 마음에서 태양도 두려워않고 양산이나 모자 없이 외출한다. 폭염과 코로나의 이중 공격이 예상되

폭염에 코로나19...올 여름 양산은 필수품

는 올 여름은 양산이 필수품이 될 것 같다. 양산쓰기 운동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양산으로 인한 그들이 마스크 쓰기보다 답답해진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 최재천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도 최근 '코로나 시퍼런스'라는 책에서 "코로나 19 사태 앞에서 지금까지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해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백신과 행동백신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듯 최고의 질서인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살길인 듯도 싶다.

양산 쓴 여인을 자주 그린 화가로는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1840~1926)가 으뜸인 것 같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양산이 자외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멋과 교양을 뽐내는 필수 아이템이어서인지 야외 사생을 중요시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여인 그림에는 양산 쓴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 유명한 모네의 '양산 쓴 여인'(1875년 작)은 사랑하는 아내 카미유와 아들이 바람 부는 언덕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뒤따라 걸던 모네가 카미유를 불러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람결에 흩날리는 하늘빛 님은 머리카라와 나무끼는 옷자락, 구름, 초록색 양산 아래 부드러운 카미유의 표정이 평화로운 꿈처럼 낭만적이다.

이 그림 외에도 '원편으로 돌아선 양산 쓴 여인' '오른편으로 돌아선 양산 쓴 여인' 등 지칠 줄 모르고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클로드 모네 작 '양산 쓴 여인'

또 그렸던 모네는 이 작품에서도 인상주의 화가답게 시시각각 변하는 색과 빛을 향한 지극한 노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